눈꽃 열차 함께 타고 힐링 새해맞이

삼광사, 1월 4일 일반인과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문화행사

1월4일 다문화 가족과 부산 시민이 함께 한 제1회 힐링 눈꽃 열차 여행에서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이 다문화가정 청소년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웃고 있다.

다문화 가족과 삼광사 신도들이 함께 화합하고 추억을 만들기 위한 시간이 마련돼 화제다.

삼광사(주지 무원)에서 기획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한 '제1회 행복한 동행, 힐링 눈꽃 열차'가 부산시민과 다문화 가정 참석자 4백여명을 싣고 1월 4일 부산 부전역을 출발했다. 목적지는 강원도 태백시 추전역이었다. 6시 30분 출발한 열차는 16시간 가량 달려 밤 10시 40분 부산 부전역으로 돌아오는 당일 코스로 준비됐다.

'행복한 동행, 힐링 눈꽃 열차'는 '하나가 되는 가족 여행'이란 콘셉으로 기획된 프로그램. 인종은 달라도 분별심 없이 서로를 포용하고 하나가 되자는 의미를 담은 삼광사의 다문화 가정포교 사업이다.

무원 스님은 "강원도로 향하는 열차안에서 아름다운 눈을 보며 지난 한해를 돌아보고 잘못이 있다면 참회하고 반성해 성장하는 계기로 삼자는 의미로 힐링여행이라고 이름 지었다"며 "신도분들과 다문화 가정 식구들이 이번 여행을 통해 서로 화합하며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차가 출발하자 곧이어 각종 레크리에이션과 7080 추억의 음악여행, 유랑극단 에저또의 '그때를 아십니까?' 등의 공연이 이어지며 기차여행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여행 코스별로 설경 마주하기, 노래자랑, 유아 참가자들을 위한 썰매 타기 등도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단순히 놀이활동에서 그치지 않았다. 한글소리운동과 박철민 박사의 '움직이는 이동 건강 강좌' 등 가족 건강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까지 마련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부산-강원도 기차여행 4백명 참가 프로그램 즐기며 서로 화합 이뤄

부부가 함께 참석했다는 김외자(67)씨는 들뜬 목소리로 "이렇게 재미있는 여행은 처음이었다"며 "삼광사에 있는 다문화 식구들과 신도들 모두 한가족이 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프로그램도 굉장히 유익했다"고 소감을 말했다.

무원 스님은 다문화가정 식구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다문화 아이들과 썰매 타기도 직접 하며 허물없이 다가가자 참가자들 얼굴에도 환한 웃음꽃이 피었다.

14년 전 인도네시아에서 왔다는 에밀리아(40 · 한국명 박현아)씨는 "무원 스님과 함께 여행하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즐거웠다"며 "다문화 가정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기뻤다. 특히 처음 보는 눈꽃이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전했다.

무원 스님은 현재 한국다문화센터 대표를 역임 중이며 다문화 다종교 화합을 위해 베트남인 법회 봉행,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과 지역 청소년들의 화합을 위한 청소년 문화캠프, 세계전통음식 어울림 문화 한마당 등 다양한 다문화 프로그램을 개최해왔다. 또한 다문화 가정 복지 사업으로 다문화 모자의 자립공간인 명락 빌리지, 청소년 인성 교육 센터 설립 등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아왔다.

무원 스님은 "올해도 다문화, 다종교의 화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화합을 통해 대중 포교를 위한 발판을 만들 것이다"고 강조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불교, 2015년 을미년 새 출발 다짐

부산불교연합회 · 부산불교승가연합회 신년하례

부산불교가 2015년 을미년을 맞아 신년하례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새 출발을 다짐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수불)는 1월 5일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신년하례회를 개최하고 2015년 사업 목표를 '전통문화계승' '복지사회건설' '정법홍포 및 포교'로 삼겠다고 밝혔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주요사업을 소개하며 "전통문화계승을 위해 부산연등축제를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 팔관회, 사명대사 추모대법회, 동지팥죽축제를 범국민적인 문화행사로 승화시켜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인간성 회복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불교의 사회화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활동에 매진하겠으며 승속 구분 없는 대화와 소통으로 화합과 교류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회장 수불 스님은 신년사에서 "승가는 부산불교연합회를 중심으로 단합하고, 재가는 부산불교연합신도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부산 불교가 한국불교의 중심으로 우뚝 서도록 합심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수불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무원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심산 스님 및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불교승가연합회(회장 법민)도 1월 7일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신년하례회를 개최하고 "화합과 사회봉사 및 경전학교 개최를 통해 승가연합회의 자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조직의 내실화, 회원배가운동, 공부를 통한 수행자 위상 정립, 불교 및 전통문화 계승, 효문화 실천, 복지불교를 강조하며 실천할 것을 독려했다.

회장 법민 스님은 "불교 및 전통문화 계승으로 미풍양속을 선양하고 나눔과 기쁨으로 부산불교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부산불교승가연합회 회장 법민 스님, 이사장 조연 스님 외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하성미 기자

2015년 신년하례회에서 부산불교연합회는 축하떡 나누기를 진행하며 힘찬 새해의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마련했다.

조계종 前종정 혜암대종사 13주기 추모재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당 성관대종사 13주기 추모재가 1월 7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됐다.

이날 추모재에 앞서 원당암 감원 원각 스님은 혜암문도회 회장 성법 스님, 무영 스님, 문중 · 문도스님들과 함께 미소굴에 먼저 참배한 후 비림 부도탑전에서 육법공양의 예을 올렸다.

참배의식이 끝난 뒤 함께 큰절 법당 대적광전으로 자리를 옮긴 문중 · 문도스님들은 해인사 소임스님들과 각 말사 감원 스님, 산내 비구니스님, 대중, 학인스님들과, 사부대중 3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헌다 · 헌향 · 헌화의 예를 시작으로 추모재를 봉행했다.

혜암대종사 스님은 1920년에 출생, 17세에 일본으로 유학해 동양철학을 공부하던 중 조사어록을 보다 출가를 결심하게 됐다. 1946년 27세에 해인사에 입산해 인곡 스님을 은사로, 효봉 스님을 계사로 계를 받았다.

스님은 '일일일식' '장좌불와'를 수행의 근간으로 여기며, 해인사 주지, 종단 원로의원, 원로회의장을 역임했으며 해인총림 6대방장과 제10대 종정에 추대됐다.

법랍 56세, 세수 82세로 2001년 12월 31일 해인사 원당암 미소굴에서 문도들에게 "인과가 역연하니, 오로지 목숨을 걸고 참선수행 잘하라"는 당부를 남기고 입적했다. 손문철 대구 지사장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당 성관대종사 13주기 추모재가 1월 7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됐다.

석남사, 산신도 · 독성도 유형문화재 지정

구랍 31일… '유형문화재 제33호 · 제34호' 지정 고시

경남 울산 석남사(주지 도수)의 산신도(山神圖)와 독성도(獨聖圖)가 울산문화재 '유형문화재 제33호', '유형문화재 제34호'로 구랍 31일 지정, 고시됐다.

'산신도'는 산신과 호랑이를 신격화한 불화로 도교적 산신신앙을 불교적 도상으로 표현한 그림. 석남사의 산신도는 1863년 경운당 성규 스님이 제작한 세로 89.0㎝, 가로 68.6㎝ 규모의 그림이다. 산신은 인자한 노인의 얼굴을 하고 있으며 옆에 앉은 호랑이를 쓰다듬고 있다. 공양물을 든 동녀와 소나무가 배경으로 등장한다.

전체적으로 단순한 구성과 안정적인 공간감을 보이는 비교적 이른 시기의 산신도 형식을 나타내고 있으며 불화승 성규 스님의 화풍과 경상도 지역의 불화승과의 교류를 살펴볼 수 있는 기준작이다.

'독성도'는 세로 98㎝, 가로 76.8㎝ 크기의 불화로 색과 녹색을 주조(主調)로 하고 청색과 백색을 활용해 19세기 후기 불화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독송도 하단에 표기된 화기(畵記)에 따르면 1889년 수화승 봉규 스님에 의해 제작돼 석남사 대웅전에 봉안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울산 유형문화재 제 33호 산신도

두 그림 모두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학술적 가치가 인정돼 울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하성미 기자

"부처님의 성도재일, 그 뜻을 기억해요"

조계종부산연합회, 제4회 성도재일 대법회 봉행

성도재일의 중요성을 돌아보는 대법회가 봉행된다. 조계종 부산연합회(회장 수진)에서 주최하는 '성도재일 대법회'와 부처님의 생애를 돌아보는 퀴즈대회가 1월 25일 오후 2시 해운대 벡스코 컨벤션홀 3층에서 개최된다.

올해 4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성도재일의 중요성을 알리고 축제와 화합을 위한 자리로 매년 기획됐다. 이 행사는 매년 부산 조계종 소속 사찰의 신도 2000여명이 참가하는 등 성황을 이뤄 부산지역 성도재일을 기념하는 대표 법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날 행사는 '1부 성도재일 기념 대법회' 봉행을 시작으로 개그맨 이수근의 사회로 '도전, 범종을 울려라 퀴즈대회' 순으로 진행된다.

청소년 포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퀴즈대회는 참가대상을 청소년 포함 3인 1조로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사찰 주지 스님의 추천을 받은 조계종 사찰 신도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참가인원은 총 108팀으로 324명 접수중이며 팀당 참가비는 3만원이다. 참가비용은 일체 포교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신청마감은 1월 20일까지며 신청서 및 예상 문제는 다음카페(cafe.daum.net/bsbuddhism)에서 받을 수 있다. 출제범위는 예상문제 80%, 일반상식 20%로 구성된다. 우승팀에게는 100만원의 상금과 경품과 부상 등이 주어진다.

조계종부산연합회 사무총장 목종 스님은 "성도재일의 중요성을 돌아보고 그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한 행사이므로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051)501-7554 하성미 기자

사찰 건축

천년 가람을 이루는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신스틸공법 시공 / 대웅전 / 요사채 / 산신각 / 전문시공

스틸한옥의 장 점

◆ 단열효과가 높고 유지 보수가 쉬우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 층수에 관계없이 고층 시공이 가능함. 한옥빌라, 한옥빌딩, 한옥아파트 등
◆ 스틸구조에 의해 디자인 면에서도 한옥의 선을 맘껏 살릴 수 있다. 다양한 디자인 한옥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주)성한기업 한중열 합장
부산 사상구 강선로 11번지 / 010-4245-1335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 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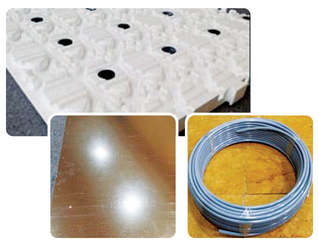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4 D.I.Y 시공 가능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특허청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 설치장소 ■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www.jjunheating.co.kr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 지역 대리점
강북 : 010-9298-9608 익산 : 010-6610-2337 울산 : 010-4597-5577
여수 : 010-3612-7784 강남 : 010-5097-8291 광주 : 010-7119-1368
양산 : 010-6294-6126 남양주 : 010-9183-9729